Book World : Today and Tomorrow

▨ 第23回 讀書週間紀念 세미너

圖書文化의 現在와 未來

1. 趣旨 : 第23回 讀書週間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圖書文化圈이 안고 있는 여러 問題點에 관해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進路를 모색하여 政策立案資料로 제공하고자 韓國圖書館協會와 大韓出版文化協會가 共同으로 이 세미너를 開催한다.
2. 日時 : 1977年 9月 23日(金) 上午 10時~下午 5時
3. 場所 : 出版文化會館 講堂
4. 主催 :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社團法人 大韓出版文化協會
5. 主題 및 日程

10 : 00~10 : 30 登錄
10 : 30~10 : 40 開會式
10 : 40~11 : 10 第1主題 發表 (發表者 : 李萬甲 서울大圖書館長) 『圖書館과 國家發展』
11 : 10~11 : 20 커피 브랙크
11 : 20~12 : 00 討論(司會 鄭駉謨 中央大敎授)
12 : 00~13 : 00 中 食
13 : 00~13 : 30 第2主題(發表者 李恒寧 : 弘益大總長)『出版文化振興策』
13 : 30~14 : 00 討論(司會 孫永壽 : 大韓出版文化協會副會長兼 電波科學社代表)
14 : 00~14 : 10 커피 브랙크
14 : 10~14 : 40 第3主題(發表者 韓義泳 : 서울大敎授)『韓國의 圖書마켓팅의 現實과 그 向方』
14 : 40~15 : 10 討論(司會 林仁圭 : 大韓出版文化協會 常務理事兼 同和出版社代表)
15 : 10~15 : 20 커피 브랙크
15 : 20~17 : 00 綜合討論(司會 鄭駉謨 : 中央大敎授)
17 : 00 閉 會

세미너 報告書

第23回 讀書週間事業의 하나로 韓國圖書館協會와 大韓出版文化協會는 1977年 9月 23日(金) 上午 10時부터 下午 5時까지 出版文化會館에서 "圖書文化의 現在와 未來"라는 主題로 共同세미너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너를 개최한 趣旨는 圖書文化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圖書文化圈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點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進路를 모색하여 政策立案資料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미너는 學界, 敎育界, 政治界, 言論界, 出版界등에서 모두 50餘名이 참석하였다.

이 세미너에서는 圖書文化가, 진정한 知的文化의 根本이며 學術의 발전이나 産業의 발전등 國家發展을 主導한다는 前提아래, 이러한 圖書文化의 重要性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圖書文化圈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進路를 모색하기 위해서 : 서울大學校 李萬甲(社會學)敎授가 「圖書館과 國家發展」을, 弘益大學校 李恒寧 總長이 「出版文化의 振興策」을, 서울大學校 韓義泳(마켓팅)敎授가 「韓國의 圖書마켓팅의 現實과 그 方向」이라는 主題를 발표하고, 각각의 主題가 발표된 다음에 이에 대한 專門家들과의 진지한 討論이 있었고, 이에 대한 綜合討論이 있었다.

각 主題發表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圖書館과 國家發展」

① 現代를 情報化時代라고 한다. 現代에 있어서는 學術情報와 知識이 文化發展의 要因으로서 情報와 知識의 效果的인 活用이 産業의 發展이나 國家發展을 主導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世界에 있어서는 情報의 生産과 分配의 體系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國家가 世界를 主導하게 될 것이다.

② 한편 우리나라는 自然資源이 거의 없고, 우리의 肉體와 頭腦, 즉 人的資源이 가장 중요한 資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까지 敎育의 힘에 의해서 이 人的資源을 育成해 왔으며, 이제 韓國은 겨우 주어진 與件下에서 自主的인 存立이 가능하다는 確信을 가지게 되었다.

③ 그러나 우리에게는 國防 및 統一問題, 貧富格差

의 調節問題, 갖가지 社會問題, 人口問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全人類의 經驗과 知慧가운데 이에 관련된 情報를 효과적으로 活用하고 또한 보다 새로운 知慧를 創造해야 할 것이다.

④ 이러한 情報를 蒐集·組織·蓄積하여 效果的으로 이용되도록 運營管理하는 機關이 바로 圖書館인데, 韓國에 있어서는 國立中央圖書館을 비롯해서 公共圖書館, 學校圖書館, 大學圖書館등 모든 圖書館이 너무나 落後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學者나 科學技術者들은 각자에게 필요한 情報資料가 未備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研究活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⑤ 그러므로 大學을 비롯하여 各種 研究所에서 사용될 學術的 情報는 體系的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世界에서 생산되는 情報로서 우리의 生存과 發展에 관련이 깊은 資料는 하나도 빠짐없이 國內에 비치되어야 한다.

⑥ 이러한 情報의 蒐集·蓄積·處理를 위한 體系를 확립하고 그것을 유효하게 운영 발전시키려면 이 方面에 종사하는 사람의 資質을 높여야 하며, 圖書館과 情報處理業務에 종사하는 司書나 技術士의 대우를 개선하여 유능한 人材를 더욱 더 양성해야 한다.

「出版文化의 振興策」

현재 出版文化는 電波文化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위축된 감이 있으나, 電波文化는 消費的 文化요 感性的인 文化라고 볼수 있으며, 出版文化는 生産的 文化요, 知性的 文化이기 때문에 진정한 文化를 발전시키려면 出版文化가 발전되어야 한다.

① 行政當局은 물론, 國民 모두가 精神文化를 존중하는 風土를 조성해야 비로소 착실한 國家發展을 기대할 수 있다.

② 精神文化의 創造者로서의 著作者의 地位가 확보되어, 國家的으로 社會的으로 우대되는 風土가 이룩되어야 한다.

③ 電波文化의 影響으로 讀書人口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電波媒體를 통해서 敎養이나 知識을 얻었다 하더라도 圖書를 통해서 再確認하지 않으면 그 敎養과 知識은 불확실하고 또 영속하지 못한다. 近年에 여러가지 社會問題가 생기고 있으며, 한편 國民經濟의 發達로 많은 餘暇가 생겼는데 그 餘暇를 善用하여 敎養과 知識을 넓히는 方向으로 啓導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④ 우리나라 圖書館은 아직도 빈곤한 形便을 면치 못하고 있다. 各級 學校의 圖書館, 公共圖書館, 各機關의 圖書館 ,마을文庫 등이 많지만 아직도 圖書館과 藏書量이 부족하므로 圖書館의 擴充이 시급하다. 國家나 公共團體에서 이 方面에 많은 豫算을 投入해야 할 것이다.

⑤ 近者에 이른바 檢認定敎科書 波動으로 많은 出版業者들이 困境에 빠져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出版事業의 重要性에 비추어 그들이 빨리 본래의 事業에 精進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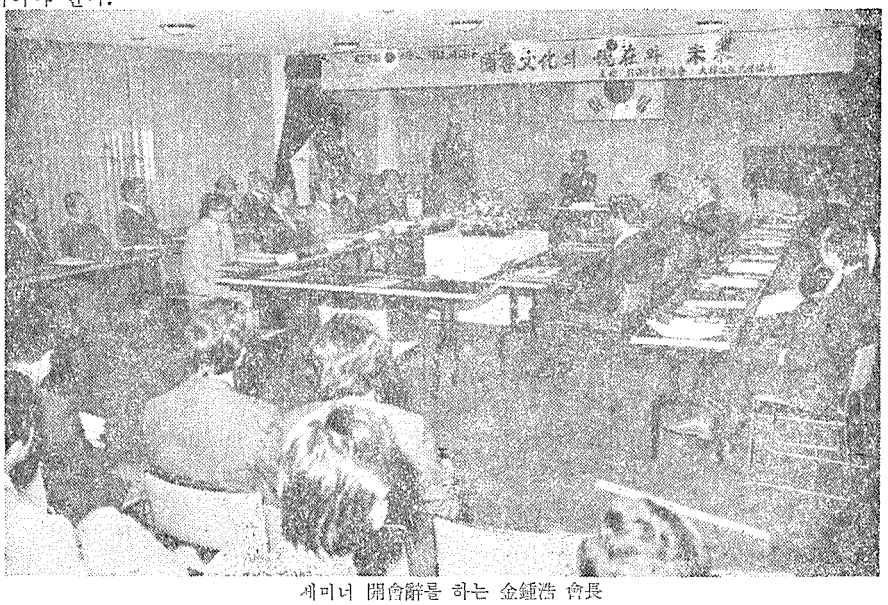
⑥ 우리나라의 圖書供給은 書籍商을 통한 정상적인 流通보다는 덤핑市場 등의 비정상적인 流通이 많아서 圖書를 購買하는 데 지장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圖書가 고루 구비되어 있는 書店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圖書流通構造의 實態와 그 方向」

① 우리나라 圖書出版 種數와 그 發行部數는 70年代에 들어와서 급증하였지만 아직도 開發途上國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현재와 같은 圖書出版增加趨勢로 보면 80年代에 가서야 中進國 水準에서 탈피할 수 있는 基盤이 마련될 것이다.

③ 國民所得과 生活水準에 부합치 않은 現行 圖書價



세미너 開會辭를 하는 金鍾浩 會長

格은 大量生産을 통한 「規模의 利益」을 追求함으로써 下向調整되어 讀書人口의 低邊擴大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圖書當 平均發行部數는 先進國에 比하여 1/10, 또는1/20로 너무나 劣勢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④ 70年代의 最大의 課題인 韓國出版界의 圖書流通構造의 改善方向은,

1) 出版社의 供給者的 觀點에서, 오직 經營合理化를 바탕으로 한 圖書마켓팅의 양심적인 追求(올바른 4P의 追求 4P= 適切한 質과 量의 圖書(Product), 適切한 價格(Price), 適切한 經路(Place), 適切한 方法(Promotion))에서,
2) 書籍商의 流通機關的 觀的에서, 적절한 質(低質圖書의 排擊)과 量(충분한 具色)의 圖書를 적절한 利潤으로 적절한 經路(덤핑市場의 排除)를 통해 적절한 方法(서어비스의 改善)으로 讀者에게 販賣하고,
3) 政府의 政策的인 觀點에서는, 大型都賣商(販賣會社)의 설치에 대한 政策的인 支援과 아울러 書店에 대한 稅制上支援, 地方圖書館網의 擴大등 圖書供給網의 整備支援과 이런 圖書供給網의 擴大를 위해서는 讀書環境改善의 支援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1) 公共圖書館의 增設과 豫算의 大幅增額
   (2) 大大的인 讀書캠페인
   (3) 圖書流通機關의 系列化 助成
   (4) 原稿料, 印稅등 활발한 著作活動與件의 助成
   (5) 低質圖書流通의 規制策 마련
   (6) 합리적인 敎科書 流通構造의 摸索과 그 支援策등이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

結論 및 提言

위의 發表主題에 대한 主題別討論 및 綜合討議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現代는 情報化時代로서 情報의 效果的인 活用이 産業과 國家發展을 主導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이러한 情報를 運營管理하는 圖書館이 너무나 落後되어 있다. 따라서 學者나 科學技術者들의 바람직한 硏究活動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③ 政府나 敎育機關, 硏究機關은 이러한 情報의 중요성을 再確認하고 圖書館의 發展策과 汎世界的인 情報의 蒐集運營管理政策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④ 이러한 政策은 우선 年次的인 圖書館 發展計劃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計劃을 성실히 推進하자면 法的으로 保障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圖書館法을 改定해야 한다.

⑤ 이러한 情報處理業務에 종사하는 圖書館의 司書나 技術士의 대우를 改善하는 동시에 有能한 人材를 더욱 더 養成해야 한다.

⑥ 出版文化의 振興을 위하여 硏究者나 著作者의 地位가 확보되고 우대되는 風潮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 讀書人口를 擴充하고 出版機關이나 著作者들은 良書를 보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⑧ 근자에 檢認定敎科書 波動으로 出版業者들이 곤경에 빠져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나 出版事業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들이 빨리 본연의 事業에 精進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우리나라의 圖書流通構造는 덤핑市場과 低質圖書의 범람때문에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低質圖書가 범람하여 圖書公害 및 情報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公害를 除去하고 圖書의 都賣와 小賣의 정상적인 流通構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⑩ 韓國出版界의 圖書流通構造의 改善方向은;

1) 出版社는 經營合理化를 바탕으로한 양심적인 圖書마켓팅을 추구하고
2) 書籍商은 良質의 圖書를 적절한 經路를 통해서 讀者에게 販賣하고
3) 政府는 大型都賣商의 설치에 대한 政策的인 支援, 書店에 대한 稅制上의 支援, 圖書供給網의 整備支援, 讀書環境改善의 支援이 있어야 한다.

⑪ 情報媒體의 國際的標準化를 위하여 韓國에서 出版되는 學術圖書도 ISBN(國際標準圖書番號)이 매겨져야 한다.

⑫ 圖書館協會는 韓國에서 出版되는 圖書에 대하여 標準化된 圖書目錄을 作成하여 各級圖書館에 配布해야 한다.

⑬ 政府는 文藝振興施策에 있어서 그 中樞的 役割을 하는 出版問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⑭ 出版文化의 도서와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政策樹立者와 圖書文化圈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도서개발위원회와 도서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⑮ 圖書의 定價가 讀者의 立場에서는 더욱 下向調整되기를 바라는 希望이 있었으나 發行部數가 고작 500~1,000部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는 大量生産과 大量普及이 先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出版界의 설명이 있었다. 出版社側에서 특히 韓國보다 種當 平均 發行部數가 10倍가 넘는 日本의 책값이 비싼 것을 例로 들어 그러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